



북한산성 내 관성소 위치(동국여도 19세기 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경기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된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¹ 및 상창지²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대청과 창고건축이 중심 영역에 주를 이루는 매우 독특한 사례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기념물로 새롭게 지정됐으며 북한산성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 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진 중앙 관아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 사진. 김수현(고양시 학예연구사)

1. 북한산성 관성소(北漢山城 管城所) : 관성장(管城將)을 배치하여 산성을 수비하는 군사를 통솔하고, 상창의 비축된 양곡을 관리하던 부서
2. 북한산성 상창(北漢山城 上倉) : 북한산성 내 있는 7개의 식량 창고 가운데 관성소가 관리하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창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군 성과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高陽 北漢山城 管城所址 및 上倉址)’가 2021년 11월 18일 경기도 기념물 제229호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덕양구 북한동 59번지에 소재하는 이 유적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북한산성 행궁지(北漢山城 行宮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북한산성 내 북한동 역사관을 출발하여 증성문, 산영루, 증흥사 등을 지나 약 1시간을 산행하다 보면, 행궁지와 대남문의 갈래 길이나오는데, 여기에서 약 1분 동안 대남문 방향으로 올라가면 바로 오른편에 마주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유적은 비지정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상 보존·관리받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고양시에서 지난 2020년 6월,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재청의 국비 100%를 지원받아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작년 3월에는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여 약 8개월 만에 ‘기념물 신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산성 관리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북한산성 축성된 다음 해인 1712년(숙종 38) ‘관성장(管城將)’이 배치되어 산성을 비롯하여 행궁, 3군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창고(호조창, 상창, 중창, 하창), 산성 수비 사찰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전담한 중앙의 관아시설이다. 1747년(조선 영조 23)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논쟁으로 혁파되어 총융청에 이속되어 운영되었고, 1879년(고종 16)에는 잠시 무위소로 이관되었지만, 1891년(고종 28) 수도 한양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설치하여 북한산성 수축과 행궁을 중수 작업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적과 관련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옛 사진으로 본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 및 상창(1911년 6월 5일 노베르트베버 신부와 독일 총영사 크루거 박사 일행, 성 베네딕토 왜관수도원 소장 자료)

『북한지』, 『만기요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기요람』에는 “관성소는 상창에 있다. 대청 18칸, 내아 12칸, 향미고 63칸, 궁기고 3칸, 집사청 3칸, 군관청 4칸, 서원청 4칸, 고지기 집 5칸, 월랑 2칸, 각문 7개이다”라고 그 규모가 명확히 기록되었는데, 2020년 실시한 시굴조사에서도 중심건물인 대청(18칸)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지가 확인되어 문헌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근대기 시각자료인 유리건판 사진에서도 건물의 배치와 추정 권역을 살펴볼 수 있다.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는 북한산성의 축조가 완료된 이후 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만들어진 중앙 관아이며, 상창은 산성 경영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 놓기 위한 시설이다. 급격한 현대화로 현재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서울)에 삼군영이 잔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영지(관아 및 창고지)이자, 산성의 운영 및 관리 상황을 비롯한 관방체계 및 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유산의 완전성을 증명해주는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에서는 유적의 권역과 건물의 배치 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를 계획 중이다. 향후 이러한 학술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북한도 중 관성소 및 상창 위치(1745년)



고양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 현황(20세기)